

#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을까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 심의 예정  
TK신공항특별법 국토위서 발목  
강기정 “광주 먼저 통과시켜야”  
민주당에 ‘당론’ 적극 협력 요청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쌍둥이법안’으로 알려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TK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데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가 재정지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광주군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광주군공항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은 21~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계류중이다. 지난 1월 지자체와 정부, 국회가 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의 동시 통과에 뜻을 모았지만 TK신공항 특별법은 ‘국가 지원’ 문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대구특별법의 2월 동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광주군공항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남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 “TK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에 놓여있지만 광주군공항특별법안은 이점이 없기 때문에 2월에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달 27일 지자체·국회·

정부 3자가 모여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자구 수정까지 마친 상태로 사실상 통과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함평·영광에 이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추가로 유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는 광주군공항 이전을 현실화시키는데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

과해 군공항 이전이 민주당의 확실한 당론임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서구 갑) 측도 “지난달 27일 지자체·국회·정부 3자 만남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이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며 “2월 국회에서 광주군공항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는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시 국고 부담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구을)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광주군공항 이전에 관해 “국고 부담이 사업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냐”며 “여러 공항들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정부담이 따르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은 사업 총괄 부처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일치해 쌍둥이 법안으로 불린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TK신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다. 이 법안들은 기부 대 양여를 원칙으로 사업 초과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 광주 자립준비청년 5명, 한전KDN 합격 ‘결실’

강 시장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

광주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구축해 온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전KDN(주)의 2023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에 광주지역 자립준비청년 5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한 청년들은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나누시에 위치한 한전 KDN 본사 홍보문화팀 등 5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자립준비청년(보

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하기관·공기업·시민사회단체 등 10개 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 기관인 한전KDN(주)은 올해 약속을 이행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구축해 온 사회적 지지체계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인턴 채용에 합격한 자립준비청년 서모(23) 씨는 “그동안 취업준비가 너무도 막막하고 세상의 관심 밖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역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 감사하고 행복했다”며 “인턴 활동을 통

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60억원을 확보했다. 성장·자립·동행의 세 방향에 맞춰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다.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대폭 늘리고, 자립교육과 심리치료 지원, 핫라인 상담창구 개설, 취업정보 등 맞춤형 플랫폼 구축, 취업교육 및 대학교재비 지원, 청년 아웃리치사업, 바람개비 서포터즈 멘토링 지원 등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지 기자**

## 광주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 공모 ‘탑솔라’ 선정

10만8000가구 사용 전기 생산  
14만880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광주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탑솔라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첨단산단 내 39.6MW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발전소가 준공되면 광주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의 3.6%에 해당하는 319G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약 10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

기 생산과 14만880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돕고 소비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최적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만큼 철저히 관리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EAM CHEMICAL KOREA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